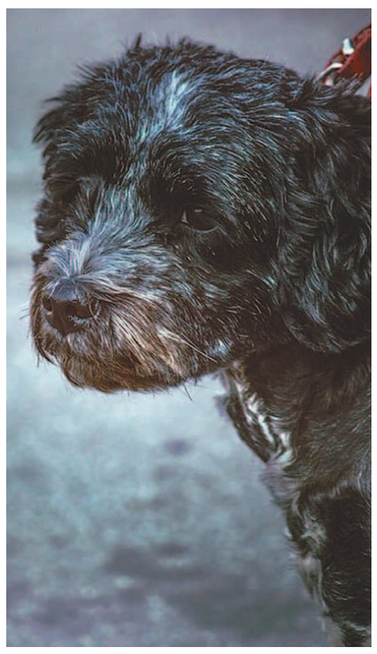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어쩌나…전문가들 해결책 고심

"경찰 수사 매뉴얼 개정"…동물 학대 줄어들까?



'홧김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경찰-동물보호단체 매뉴얼 논의
전문가들 처벌 집행 중요성 강조

자신의 스트레스를 애꿎은 동물에게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화가 나거나 홧김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사건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 유기견 보호단체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4개월 강아지를 구조했다. 강아지는 사람의 발길질에 의해 구타를 당해 턱뼈가 부러지고 안구가 심하게 다쳐 적출해야 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길고양이를 가스토치 등의 화기로 지지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동물학대범을 찾는다는 포스터의 마지막 문구는 "동물학대범의 범행대상 마지막은 사람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연쇄살인범들이 사람을 해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살해 행위를 선행해서 저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동물 학대는 동물권 차원에서 각별히 들여다봐야 할 이슈이다.

동물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만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973명이 송치됐지만, 구속자는 없었다.

처벌뿐만 아니라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행동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번이나 개정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그대로였다"면서 개정을 주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충분하게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새 수사 매뉴얼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가 매뉴얼 마련에 관여할 경우 동물권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매뉴얼이 개선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처벌의 문제가 남는다. 전문가들은 "현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된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동물학대는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관계당국이 얼마나 동물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돈이 된다?" 펫산업 뛰어드는 지자체들

평창군 300억·춘천시 600억 투자
전문가들 "짜임새 있는 계획 중요"

반려동물산업이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짜임새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원 평창군은 30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짓는다. 2024년 준공 예정이다. 20만㎡ 규모로 조성될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생애 전반의 맞춤형 복지 케어를 목표로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의료, 복지, 사료, 펫 용품 등 반려산업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각오다.

춘천시는 한술 더 떠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6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년까지 신북읍 옛 102 보충대 주차장 자리에 140억 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플랫폼센터를 구축하고, 100억 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포함된 펫팸타운도 조성한다. 2024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응급의학센터도 신축한다.

수백억 원 대의 사업이 속속 시작되니 경북 의성에 설립된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소박해 보일 정도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80억 원을 투자해 4만 여㎡에 건축면적 1600㎡인 펫월드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장을 몇 차례 연기하다 지난 6월 5일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산업의 과도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반려동물산업이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묻지마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반려동물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같이 내실 있는 행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강원 평창군의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춘천시 '반려동물 플랫폼센터' 등 반려동물산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이 잇달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펫뉴스

고양이도 코로나19 걸린다
브라질서 확진 '두번째 사례'

브라질에서 반려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인간에서 동물로, 혹은 동물 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중서부 마투 그로수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투 그로수주 연방대학의 발레리아 두트라 교수는 지난 2개월간 14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1마리 외에 다른 1마리는 감염 의심사례로 판명났다. 두트라 교수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 간에는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 연방대학에서는 주요 도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의심 사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지난 5월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코로나19 환자였던 주인으로부터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사람에서 동물로 코로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반려동물이 양성일 경우 반려동물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호승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바둑·박람회

신진서 9단, 삼성화재배 바둑 롄샤오 꺾고 '한국 유일 8강행'

내일 스웨와 8강전…전적 6전승 압도

"1위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한국프로기사 랭킹 1위 '신공지능' 신진서 9단이 한국선수 중 유일하게 삼성화재배 8강에 올랐다.

28일 각국에 마련된 특별대국장(한국은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우승상금 3억 원) 16강전에서 신진서는 중국 롄샤오 9단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롄샤오가 착수 제한시간을 넘겨 200수 만에 시간패를 당하는 바람에 얻은 신승이었다.

이날 승리로 신진서는 9월 1일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를 시작으로 11연승을 이어가며 올해 55승 5패로 91.67%의 놀라운 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신진서와 함께 16강에 출전한 나머지 한국 선수 6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신민준 9단은 일본의 유일한 16강 진출자 이치리키 료 8단에게 198수 만에 흑 불계패를 당했고, 와일드카드 변상일 9단은 중국 리쉬안하오 8단과의 대결에서 9집반이 부족해 16강을 통과하지 못했다. 조한승 9단은 중국의 1인자 커제 9단에게 182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한국의 부진과 달리 16강에 한국과 동수인 7명이 출전한 중국은 신진서에게 시간패한 롄샤오를 제외한 6명이 8강에 올랐다. 30일 열리는 8강에서 신진서는 중국 랭킹 16위 스웨 9단과 대결한다. 스웨는 세계대회 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기록한 강자지만 신진서가 상대전적에서 6전 전승으로 압도하고 있다. 신진서가 스웨를 꺾을 경우 처음으로 이 대회 4강에 진출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28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온라인 대국 중인 신진서 9단.
사진제공 | 한국기원

동아전람 박람회, 11월 5~8일 킨텍스서 개최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26회 동아 홈&리빙페어', '제20회 동아 기프트쇼', '제18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제16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2020 SENDEX 재활&복지 박람회', '제3회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가 11월 5~8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킨텍스와 공동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참가업체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철저한 방역을 실행한다. 전시장 방문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장 방문을 제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시 무료관람 초청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동아전람 주관 제54회 MBC건축박람회도 주목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54회 MBC건축박람회'(사진)가 11월 5~8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주택설계 및 시공,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건축 관련 다양한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각 지역 건축박람회가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 예비 건축주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시장의 최신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으며 건축·인테리어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예비 건축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0 서울 냉난방 및 건축설비 박람회', '2020 동아 정원 및 조경박람회 '와 동시 개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시 무료관람 초청장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해 준다.

정정욱 기자